

# 옛길·자연풍광 고스란히... 꼭 참가해야 할 여름 축제 명성



12일 화순 너릿재 일대에서 열린 제4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구충곤 화순군수(왼쪽부터), 김여송 광주일보사장,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출발을 알리는 충성을 울리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참가자들이 출발에 앞서 몸을 풀고 있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 ‘명품 숲길’ 피톤치드 속 서로 격려하며 상쾌한 질주 72쪼찌·74범띠 등 전국 각양각색 단체 대거 참여

굽이진 너릿재 옛길을 오르니 실랑실랑 바람이 불어온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특보 속에도 전국에서 찾아든 800여명의 마라톤러들은 편백과 단풍나무 등으로 둘러싸인 숲길을 달리며 시원한 여름의 한때를 만끽했다. 광주일보사의 8·15 광복절 기념 제4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는 전국 마라톤 애호가들 사이에서 ‘명품 코스’로 인정받으며 각광을 받고 있다. 마라톤 애호가들은 광주일보가 올해로 53회째를 이어가는 3·1절 전국마라톤대회의 나라 사랑의 의미처럼 너릿재 대회도 호국정신을 되새기는 광복절을 기념하는 대회라는 점을 높이 샀다.

또, 거친 숨 몰아쉬며 내달리는 험난한 코스지만 편백 등의 천연수증에서 뿜어내는 피톤치드 등의 청량한 기운이 더위를 가시게 할 만큼 상쾌하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한결같이 말했다. 애호가들은 이어 화순을 출발해 광주 동구에 이르는 8.4km의 구간을 왕복해 달리는 너릿재 마라톤의 주행 방식 또한 장점으로 꼽았다. 상행과 하행 주자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달리기엔 힘든 기색이 보일지 않으면 굳이 같은 동호회원이 아니더라도 서로 응원해주며 기운을 북돋아 준다 것이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너릿재 대회에서는 독특한 이름을 가진 동호회들이 눈에 띄었다. 71돼지띠, 72쪼찌, 74범띠 등 같은 해에 태어난 이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결성된 마라톤 동호인들이 대거 참가했다. 같은 연령대에서 공통된 관심사를 함께하니 결속력이 좋아 결승선에 들어오는 동료를 목청껏 응원하고 부축하는 등 대회장 분위기가 더욱 활기찼다.

구충곤 화순군수,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등 너릿재 마라톤의 개막식에는 축하객들로 가득찼다. 구충곤 군수는 “화순을 대표하는 명소에 전국 마라톤러들이 달리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여긴다. 앞으로 너릿재 옛길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택 광주시 동구청장 또한 “대회 참가자 모두가 안전사고 없이 완주하길 바란다. 광주와 전남을 잇는 너릿재 옛길에 대해서도 널리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남자 풀코스 부문 우승자는 정석근 마라톤 사관학교 감독 정석근 씨가 차지했고 여자 풀코스에서는 배정임씨가 우승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전국 ‘71년 돼지띠’ 우정의 첫 무대

제4회 너릿재 옛길 흑서기 마라톤대회는 ‘71년 돼지띠’ 친구들의 우정의 한마당이기도 했다. 이수용 리더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는 모두 45명. 마라톤이라는 공통분모에 같은 세월을 살아온 만큼 스텝없던 이들이지만, 알고 보면 ‘낯선 친구들’이기도 했다.

이씨가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전국 각지의 ‘71년 돼지띠’ 마라톤러를 모은 것은 지난 3월이다. 친구들끼리 격식 없이 달려보자며 이내 67명이 모였다. 서울, 인천, 대구, 포항. 광주에 이르기까지 온라인 모임이라는 특성상 지역의 한계는 없었다.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방광선 훈련 리더를 중심으로 운동 일지를 올리며 마라톤 실력을 키운 이들은 일상적인 이야기와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됐다. 그리고 삼삼오오 전국 마라톤대회를 찾았던 이들은 너릿재를 ‘첫 공식 모임’ 무대로 정했다. 광주일보와 대회를 공동 주최한 마라톤 세

상의 안중옥 공동 대표도 회원 중 한 명이다. 호스트 역할을 한 안 대표는 “처음 본 회원도 많은데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같았다. 1박 2일 일정으로 림보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웃었다. 익산에서 온 이영숙씨도 “공통점이 많으니 금방 친해졌다. 각자 지역별로 클럽 활동도 하고 있어서, 여러 정보도 공유하고 좋다”고 말했다.

인천에서 걸음을 한 김선우씨는 “다 같이 모이기 힘들었는데 이렇게 한자리에 모이니 기쁘다. 초등학교 친구들이 함께 놀러 온 기분이다”고 언급했다.

아마추어 마라톤러 이전에 프로 골퍼이기도 한 리더 이씨는 “골프도 하체 운동이 중요하다. 달리기만의 매력도 있다. 기록에 욕심을 내기보다는 즐겁게 달리고 있다”며 “산길을 달린 이번 대회는 심장이 뛰는 느낌이었다. 평지를 달릴 때와는 다른 기분이었다. 내년에도 친구들과 함께 오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오버 페이스 딛고 4연패 기백”

男 풀코스 우승 정석근씨



“초반에 오버 페이스를 해서 힘들었는데 4연패를 이뤄 기쁩니다.” 서울 정석근 마라톤 사관학교 감독 정석근(46·서울)씨가 이번에도 가장 먼저 남자 풀코스 결승선을 통과했다. 지난 2015년 대회 초대 우승자로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매년 너릿재 옛길을 찾아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다. 이번에는 5명의 수장생도 동행했다.

정씨는 “지난해 서브 3로 우승을 해서 오늘 욕심을 부렸다. 후반에는 다리 근육이 올라와서 걷기도 했다”며 “기록은 좋지 못했지만 결승선에 들어오고 이렇게 우승까지 해서 기분이 좋다”고 웃었다.

그는 자연과 하나가 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대회라고 말한다. 정씨는 “도로가 생기기 전에 옛날 사람들이 걸어갔을 길이라는 생각을 하며 뛰다 보면 여러 감정이 된다. 잊혀 가는 것을 외면하지 않고 이렇게 활용하는 게 좋다. 자연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훌륭한 대회다”며 “그리고 매년 참가자가 늘어나는 것을 느낀다. 건강한 마라톤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다”고 말했다.

또 “고령화 시대를 맞아 건강하게 장수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에서도 국민 건강을 위해 마라톤 저변 확대에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가족적인 잔치”서 잘 놀았네요”

女 풀코스 우승 배정임씨



“신나게 놀고 갑니다.” 여자 풀코스 가장 높은 시상대에 선 배정임(51·김해)씨는 “첫 대회에서는 25km에 출전했는데 발바닥이 좋지 않아서 준우승을 했었다. 후반기 대회를 위한 연습 겸 이번엔 두 번째로 출전했는데 우승을 하게 됐다. 기분이 좋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배씨가 처음 마라톤을 시작한 것은 지난 2002년. 다이어트를 위해 시작한 마라톤은 배씨의 ‘인생’이 됐다. 그는 “이번 대회까지 177회 완주를 했다. 혼자 운동을 하는 편이다. 내 몸에 맞게 조절하면서 운동에 집중하게 된다. 땀 흘리는 것을 좋아한다. 땀 흘리고 나면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버리게 된다”며 “몸도 좋아지고 스트레스 ‘0’의 인생을 살게 됐다”고 마라톤 예찬론을 폈다.

3년 만에 너릿재 옛길을 달린 배씨는 ‘즐거운 잔치’를 다녀간 기분이라며 웃었다.

배씨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대회다. 시골에서 잔치하고 가는 기분이다. 처음, 마지막 오르막도 시원하고 급수도 잘 해주었다. 기분 좋게 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우승 기운을 이어 다음 사천 노을 마라톤 대회에서도 좋은 결과 내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

## “3전4기 우승...내년엔 풀코스”

男 25km 우승 마성민씨



“지난해 8.5km 부문 준우승을 했는데 3번의 도전 끝에 너릿재 마라톤대회에서 우승해 기분이 좋습니다.”

1시간 37분 28초의 기록으로 남자 25km 종목에서 우승한 마성민(36·목포나눔마라톤)씨는 “지난해 8.5km 부문에서 준우승을 하는 등 2번 연속 우승을 눈앞에 놓았다”면서 “올해는 페이스 조절을 하면서 마지막 1바퀴에서 승부를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레이스 임했는데, 모든 계획이 딱 맞아떨어져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다”고 우승 소감을 밝혔다.

3년 전 우연한 기회를 통해 무안 마라톤대회 하프코스에서 출전을 하면서 마라톤을 처음 접한 마씨는 “마라톤이야말로 운이 아닌 자신의 노력만큼 기록이 나오는 유일한 스포츠”라면서 “(광주일보) 너릿재 옛길 마라톤 대회에도 2번 참가했지만 매년 우승의 문턱에서 좌절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목표 영산강 하구둑 길을 10km 이상을 뛰었더니 어느새 1등 자리에 이름을 올렸다”고 활짝 웃었다.

마씨는 “내년에도 너릿재 옛길 마라톤에도 또 한 번 도전하겠다”면서 “이번 우승으로 얻은 자신감을 가지고 연습량도 조금씩 늘려 내년 대회에서는 풀코스 완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의지를 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 “올 가을 ‘서브 3’ 도전할래요”

女 25km 우승 노은희씨



“너릿재 마라톤 대회 우승의 기세를 몰아 서브3(풀코스 3시간 이내 완주)에 도전하겠습니다.”

마라톤에 입문한 지 1년 4개월이 됐다는 노은희(45·전주)씨는 12일 열린 너릿재 마라톤 대회에서 가장 먼저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여자 25km 종목 우승자가 됐다.

노씨는 “여름에는 마라톤 대회에 거의 없어 이번 너릿재 마라톤대회를 연승으로 뛰어보자는 생각으로 풀코스가 아닌 25km부문으로 신청했다”면서 “날씨는 무더웠지만 너릿재 코스는 그늘이 많고 반향점을 돌때마다 동료들의 응원을 받으면서 수월하게 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전주에서 수학 학원을 운영하는 노씨는 “초·중·고 시절 체육대회 때마다 도맡아 계주선수로 활약했던 경험 등을 토대로 자신감 있게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고 있다”면서 “어린 시절부터 토레 남 자친구들과 달리기를 해도 뒤진 적이 없었던 기억들이 마라톤을 완주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며 밝게 웃었다.

노씨는 “이번 대회 우승으로 또 다른 목표가 생겼다”면서 “풀코스(42.195km) 기록은 현재 3시간 10분 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올 가을에는 아마추어 마라톤러의 꿈인 서브 3에 도전해 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